

바다 문법- 형태론

'형태론'

/형태/ 형태소부터 단어까지/ 단어의 구조를 살피고(형태소) 단어의 품사를 정리한다

형태소는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로 구분

실질형태소: 구체적인 대상, 대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 '어간'이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

형식형태소: 말과 말 사이의 관계나 기능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 기능, 진행상 높임 시제 등이 이 형식 형태소를 통해서 드러남

cf)자립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것

의존에는 형식(접사, 어미, 조사)+ 어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주의!

이러한 형태소가 결합해서 단어가 만들어진다

형태소 하나가 바로 단어가 되기도 하며- 단일어

또 여러 형태소가 결합해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복합어

단 형태소 분석을 통한 단일어와 복합어 정리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f)지붕은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우선 어문 규정과 관련해 지붕은 어근 집+우+르+로도 어원을 살필 수 있는데 이 우+르 이 위라는 뜻이고 이것이 변화해 집+우+르 지붕이 되었다고 볼 때는 합성어이다

그러나 형태소 분석을 하면 즉 현대의 개념만 보자면 우+르 집사로 잘 사용되지 않음 따라서 지붕을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 사전의 관점

다시 통시적 관점을 고려하면 지붕은 집+우+르+로도 어원을 살필 수 있는데 이 우+르 이 위라는 뜻이고 이것이 변화해 집+우+르 지붕이 되었다고 볼 때는 합성어이다

공시적인 형태소 분석을 할 것인가 혹은 통시적인 관점을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분류가 가능하다

유사하게 뱀죽하다도 뱀죽-하-다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사이기에 형태를 밝혀적었다.

반면 현대 국어에서 죽은 잘 사용되지 않는 접미사로 아예 뱀죽을 하나의 어근으로 본다면

뱀죽-하-다로 분석할 수 있다

바다 문법- 형태론

단어의 기본: 어근과 접사가 핵심, 근접으로 기억하기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접사는 어근에 덧붙여 의미를 더해주거나, 품사나 문장의 형태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 의미를 더해준다는 것은 두 단어를 하나로 만든다는 등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헛수고라는 경우에는 수고라는 실질적인 의미에 헛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웃음 역시 웃에서 웃이라는 실질적인 의미에 음이라는 접미사 붙어서 아예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고 있다

열리다는 열에 리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사동의 의미를 더하고 문장의 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형태소 하나만 가지고 단어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단일어(나무)

형태소가 둘 이상 결합하는 경우를 우리는 복합어라고 하다(헛웃음, 짓밟다, 웃음)

복합어도 접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파생어와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합성어가 있다

특히 이러한 복합어와 파생어의 구분은 자주 등장하는 직접 구성 성분 분석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네톨웃음 네톨과 웃음- 합성어, 웃음은 파생어,

2017 9월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분할 때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문장 차원에서는 주어와 서술어를 분석할 때 활용한다

쉽게는 단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민물고기의 경우에는 민물+고기로 쪼갤 수 있는데 이때 주의점은

① 직접 구성 성분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ex)살얼음- 살+얼음vs 살+얼음- 살얼다라는 단어가 없기에 살+얼음, 파생어

② 나눌 때 실제 의미가 통해야 한다

ex) 벽돌집의 경우에는 벽+돌집으로 하면 실제 의미가 통하지 않기에 벽돌+집으로 합성어
다른 선지)

나들이웃은 나들이+웃

드높이다는 드높다라는 파생 형용사가 있기에 드높+이+다, 드+높이다 모두 가능

두 경우 모두 파생어

집집이는 집집+이 명사에 부사 파생 접사 이가 붙은 형태- 어문 규정

놀이터는 놀이+터 즉 파생어+ 단일어 결합의 합성어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중의성을 확인하는데 도움“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중 부지런한 거북이”

바다 문법- 형태론

단어의 분류: 형태/ 기능/ 의미

형태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어 독립어 관계어

의미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지며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 감탄사 조사

이때 의미는 실제적 의미보다는 추상적인 의미 분류에 기초한다

다시 개념을 정리하자면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화하는 가변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사용할 때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불변어 기억

cf) 서술격 조사는 어떻게 활용될까?

우선 활용은 가변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어미가 바뀌면서 형태가 바뀌고 이를 통해 특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먹다는 동사가 먹으니 먹으면 먹어서 먹은 등으로 활용하며 부사어나 관형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용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서술격 조사는 '형용사'처럼 활용된다

특히 서술격 조사 이다는 동사 파생 접사 이다와의 비교를 통해서 형용사처럼 활용한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별이 반짝이다- 접사가 붙어서 동사로 파생, 동작과 작용, 선어말 어미 ㄴ을 붙여보기!

VS

제출기한은 내일까지이다- 체언/ 부사/ 조사/ 어미 뒤에 붙어서 주어의 부류와 성질을 지시, 선어말 어미 ㄴ은 못 붙음,

여기가 서술격 조사

문장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와 관련해서

체언-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 서술어의 역할/ 동사 형용사

수식어-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 관형사 부사

관계어-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조사

독립어-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관계 맺지 않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 감탄사

바다 문법- 형태론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 범류에(추상적인) 기초한

명사-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고유명사 보통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앞에서 정리한 내용 그대로!)

cf) 너무 중요한의존명사

쉽게 명사 중에서 혼자서는 사용되지 못하고 반드시 그걸 리가 없다처럼 관형어(그걸)이 필요한 명사

같은 형태가 어미나 조사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요구된다

ex) 그걸 본 지도 10년이 지났다 vs 할지도 모른다

전부 암기할 수는 없기에

앞에 용언의 활용형을 중심으로 한 관형어가 오고 뒤에는 조사가 온다면 의존 명사로 파악하고 띄어쓰기

본 대로 말해라- 의존/ 법대로 하자-격조사

웃은 만큼 기뻐하세요- 의존/ 너만큼 아름답다- 격조사

관형어로는 명사(구두 때문이다) 관형절 (예쁜 데로 가자) 명사절 (그녀가 하기 나름이다)가 있으며

의존명사 자체의 경우에는

대문적으로 이,것,데,바,따위/

지(시간, 영화를 안본 지 3년이 넘었다.), 수,리, 나위/

따름 나름 때문 뿐 터/

만큼 대로, 채 '덧, 양, 척, 체, 법, 만' (하다와 결합해 보조 형용사로 주로 사용)

단위 개 명

cf) 만- 기간 띄어쓰기/ 간- 기간 붙여쓰기/ 지오 시간은 띄어쓰기

여기밖에 없어(ONLY는 조사로 기억)/ 여기 밖에 있어(이때 밖은 OUTSIDE를 의미)/

vs 그릴밖에 (르 밖에, 종결어미)

cf) 사람 때문이다- 때문도 의존 명사로 기억하기

cf) 군데도 의존명사 따라서 여러 군데의 경우 관형사와 의존명사의 결합으로 파악하기

대명사-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것

인칭 대명사(1인칭 2인칭 3인칭-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지시 대명사(여기서도 부정칭 미지칭)

바다 문법- 형태론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선수사- 순서 첫째 둘째 셋째

양수사- 수량 하나 둘 셋

cf) 뒤에 등장할 수관형사와의 비교:

한 두 세 한 남자- 수관형사, 체언을 수식 VS 하나가- 아예 수사

cf) 대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1인칭은 화자 포함

2인칭은 청자 포함

나머지는 3인칭, 재귀칭, 부정칭, 미지칭은 모두 3인칭으로

부정칭은 별로 알고 싶지 않다&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것 영어로는 some any

미지칭은 알고 싶어 미지쳤다& 모르는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 영어로는 who으로 기억

누가 왔어- 미지칭 부정칭 모두 가능, 아무 아무개도 미지칭도 있으나 대부분은 부정칭

미지칭 부정칭은 지시 대명사에서도 적용가능 무엇이든- 부정칭, 무엇이니?- 미지칭

재귀칭은 문장 안에서 이미 나온 체언을 다시 서술하는 것

EX) 우리는 자기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곤 한다

2018 수능

부정칭 미지칭을 의미하는 누구에 대한 통시적 고찰

우선 누가 왔니에서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부정칭과 미지칭이 모두 가능하다

암기보다는 읽고 넘어가자

웬래 중세에서는 누만 등장했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의 보조사 고/구가 붙으면서 시작

누- 누고/누구- 누구니?이렇게 변화한 것

즉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의 보조사가 붙으면서 점점 굳어지고 현재는 누구만 남았다

바다 문법- 형태론

수식언인 부사 관형사 체크하기

관형사와 부사와 관련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은 이 둘은 어근이라는 사실!

새해에서 새는 관형사로 해의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한정하며 접사가 아닌 어근, 이미 하나의 단어

부사와 관형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으로 기능하고

관형사의 경우에는 체언을 설명하고 한정하며

부사는 용언 부사 문장 전체를 그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한정한다

관형사는

새 흰 옛- 성질과 상태를 수식하는 성상

이 그 저 요(보름에 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모든 여러 갖은 온 온갖- 수량을 표시하는 수

금강새끼의 이고저 한두세 다른여느어느 모든 갖은으로 기억해도 좋다

cf) 수사와 수관형사의 비교 필요

수사는 체언으로 기능 수관형사는 수식언으로 기능

첫째 아들은- 수관형사/ 첫째가- 수사 특히 순서를 나타내기에 서수사

cf) 주의할 관형사

의미상 주의& 중요도 높음

어느- 보통의

어느- 막연한 사물, 어떤으로 바꾸어서 해석, 어느 해보다 춥다, 제일 추운 것

다른- 형용사의 관형사형인 다른과 관형어 다른을 구별할 필요가 존재

용언의 관형형은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형어의 수식이 핵심 판으로 해석할 때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관형사는 서술성이 없으며 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른 사람들은 안 왔니? // 사람들이 다르다는 충분한지 않은 문장, 무엇인가 빠져 있음, 판 사람들 좋음

성격이 다른 사람은 안 왔니? // 사람들은 성격이 다르다는 충분한 문장, 성격이 판은 이상

그는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 나와는 부류가 다르다는 충분한 문장, 판 부류도 가능 그래도 우선 서술성이 있기에

관형절로 보는 것이 좋음, 풀사는 형용사

cf) 관형사의 형태만 살짝 정리하기

힌다하는(한다)- 능동결

갖은, 여남은, 예수남은, 스무남은-은동결

바다 문법- 형태론

다른 등 대다수- 2 종결 이 부분에서 관형사인지 관형절인지 묻는다, 서술어로 바꾸보기!

부사의 경우에는

이리 저리 그리- 지시

별로 많이 - 성상

안 못 - 부정

다행히 도대체(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양태부사)

그리고 맞(단어나 문장의 앞뒤를 잇는 접속부사)

cf) 체언 수식 부사

부사는 원래 부사 문장 전체 용언 등의 뜻을 분명하게 한정하고 설명하는데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가능

이러한 부사의 존재를 체언 수식 부사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체언 수식 부사의 대표적 예시는

바로 아주 겨우가 대표적!

바로 너야

그는 아주. 제일 부자야

겨우 이것밖에(조사) 못했니?

바다 문법- 형태론

용언에서 동사 형용사 비교

동사는 동작과 작용, 작용에는 성질과 상태의 변화가 들어간다

활용은 어미가 변화하며 형태가 바뀌며 문법적 기능이 변화하는 것으로 기현어의 핵심이다

새벽이 밝는다. 밝다는 성질과 상태의 형용사이지만 이것이 동사가 되는 것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서술격조사)

성상형용사

지시형용사- 이렇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이렇게 예쁜 꽃'에서 알 수 있듯 지시- 성상 순! (이렇하다+게/예쁘다+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활용의 양상인데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현재형 선어말 어미 ㄴ 이 붙지 않고

명령과 청유를 쓰지 못하며

감탄형 종결에서는 구나

목적의 으리 의도와 욕망의 으리는 쓰지 못함

cf) 정리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 ㄴ 동사만! 예쁘다x 본다o

관형사형 어미 ㄴ 은 동사는 과거/ 형용사는 현재

목적의 (으)리, 의도의 (으)리고 동사만!

명령 청유 동사만!

감탄형 종결어미 구나- 형용사/ 는구나- 동사

용언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그리고 규칙 불규칙 활용까지 정리해야 한다

용언은 실제 행동과 연결되는 본용언

실제 행위는 아니고 본용언의 뜻을 더해주는 보조용언 주다 머리를 깎아(본) 주다(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해서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

반면 본용언 두 개는 각자가 서술어다

바다 문법- 형태론

따라서 머리를 잘라 주다는 서술어 하나이고 머리를 잘라 갔다는 서술어가 두 개다

보조용언도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준다 선어말 어미 ㄴ 이 결합할 수 있다면

즉 일반적인 동사의 활용을 따른다면 이때는 보조동사

그럴 수 없다면 보조 형용사이다

다만 '하다'류와 있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못하다 않다 하다 등의 주로 앞에 있는 본용언의 품사를 따라가며(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 나와도 사전형이기에 알
기할 필요는 없음)

머지 않았다- 보조 동사// 놓지 않다- 보조 형용사

있다는 고 있다 형태로 진행을 나타내면 보조 동사 어 있다로 상태나 완료 등을 나타내면 보조 형용사

꼭이 피어 있다- 보조 형용사 해가 뜨고 있다- 보조 동사

기본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며 붙여쓰는 것을 허용하며(어/아 중심)

본용언이 합성동사일 때(떠내려가 늘어져) 혹은 조사가 붙었을 때(머지는 못하다) 반드시 띄어 쓴다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

규칙 활용은 형태가 변화하지 않거나 형태가 변화하더라도 그것이 규칙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음운 변동인 ㄹ 탈락과 으 탈락 등은 탈락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ㄹ 탈락: 용언 어간 $\text{ㄹ} + \text{ㄴ}$ 이 시 오로 시작하는 어미 날다 난다 납니다 나시오 나오

으 탈락: 용언 어간 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쓰다 써 써서

가+아서 가서가 되는 경우에도 어미가 바뀌나 이것 역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

불규칙 활용의 경우에는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둘 다 바뀌는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규칙 활용과는 다르게

바다 문법- 형태론

불규칙 활용은 특정한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형태론적 이형태와도 연결(어미가 달라지는 경우만 고려!)

이해를 위해서 ㄷ 불규칙

묻다- 묻고- 물으니- 물으면-물어서/ 묻다- 묻고- 묻으니- 묻으면- 묻어서- 불규칙

불규칙은 암기!

어간이 바뀌는

ㅅ (우)- 모습 앞에서

ㅅ (사라짐) - 모습 앞

ㄷ (르)- 모습 앞

우- 모습 앞에서

르(르 르)

여 러 / 오 너라

ㅎ 어미 어간 모두 정리하기!

cf) 읽어보기- 형태론적 이형태 VS 음운론적 이형태

동일한 의미와 기능의 형태소가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이형태라고 하는데

자음 모음 비음 유음 등 특정한 음운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동되어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달/모음 닷/자음 당/비음처럼 음운 환경에 따라서 자동 변동

형태론적 이형태는 특정 형태소와 관련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이형태로

유정명사 에게 무정명사 에

하- 어간 뒤에는 여 나너지 어간은 어/아 등이 대문적이다(하여VS 먹어)

특수한 어간에 따라 어미가 바뀌는 하여를 기억하면 된다

바다 문법- 형태론

감탄사

감탄사는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켜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품사로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람 등의 감정과 느낌을 나타내는 감정 감탄사(아이고 어머나, 예그러거나)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는 의지 감탄사(여보세요, 여. 이봐, 예, 응, 아니, 아뇨, 아니요+ 천만에, 글썸)

느낌이나 생각 없이 단순한 입버릇 혹은 말이 안나와서 더듬거릴 때 쓰는 입버릇 감탄사가 있다(음, 뭐, 잊지)

중요한 내용은 문장 안에서는 부르는 말이나 품사로는 감탄사가 아닌 '학생', '친구야'를 기억하기

감탄사는 다른 성분에 켜매이지 않는기에 단어 하나로 문장을 이루기도 한다.

EX) 뽕쇼! 여보세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응? 아니요, 아이구, 그건 글썸, 아니

이 내용에서는 문장 부사 중 양태 부사(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현)와

EX) 다행히 비가 그쳤다, 솔직히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또 체언+ 호격 조사(부르는 조사, 여, 야, 이시여)는

EX) 애들아

감탄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다 문법- 형태론

조사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 문법적 성질을 나타내거나 어미, 복사, 체언 등에 붙어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혹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각각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기억하면 된다

조사를 보는 과정에서도 다른 품사와 마찬가지로 결정 과정에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실제 문제로 등장했던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에는 격조사임에도 체언뿐만 아니라 복사 조사 어미 뒤에도 붙는다

내일까지이다 넘어서이다 등

격조사의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가 께서에서(단체) 서(혼자 둘이 셋이)

목적격 조사 을을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에 에서 에게 에게서 와/과 으/로 으/서/로서(지위) 으/써/로써(수단)

서술격조사 이다

보격조사 이가

호격조사 야

ex) 얼음이 물로 되었다 얼음이 물이 되었다 조사에 따라서 전자는 복사어 후자는 보어

보조사의 경우에는

대조와 주제의 은

추가의 까지 까지 조차 도

한정의 만 뿐 밖에

선택의 이나 이나마

높임의 요

+ 기억할 만큼 대로 뿐 이것을 보조사로 볼 것인가 부사격으로 볼 것인가는 논란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만큼- 격조사/ 대로 뿐은 보조사로 본다

체언과 체언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조사에는

와/과 이랑/랑 이나/나가 있다

바다 문법- 형태론

이나/나는 보조사가 있고 와/과 랑/이랑은 부사격조사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기에 구분할 수 있어야 함

그녀와 나는 닮았다- 와는 접속조사, 체언의 연결

나는 그녀와 닮았다- 와는 부사격조사, 닮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cf) 선지로 등장했던 격조사 관련 내용

이가의 경우에는 계서와는 다르게 보조사가 잘 붙지 못한다

cf) 보조사 구체적으로 정리

대조와 주제(주목)의 은는

이중 주제(주목)는 쉽게 '말하자면 /~로 말하면' 정도로 파악하면 된다.

사라는 당도가 높은 과일이다

한정의 만 뵈 밖예

뵈의 경우에는 이다와 이 아니다와만 결합할 수 있으며 그 뵈의 서술어와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뵈와 대로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보조사로 만큼은 격조사로 처리하고 있다

뵈예의 경우에는 주로 부정형 서술어와 결합한다

뵈예는 주로 부정의 서술어와 연결된다 다른

더하는 의미를 가지는 까지 마저 조차 도는

뵈도 먹다

뵈까지 먹다

뵈마저 먹다

뵈조차 먹다처럼 이미 있는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더한다고 생각하면된다

2016 9월

과는 접속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격조사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으로 등장하기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기반해서 읽어주자!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 이때 부사격 조사

큰형과 막내는 닮았다 이때는 접속 조사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에서 큰형과는 닮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과는 부사격 조사

바다 문법- 형태론

에/에게는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 특히 에는

동생이 지금 집에 없다처럼 취소의 부사격 조사

또 방금 집에 왔다처럼 진행 방향의 부사격 조사

또 국에 밥에 반찬에 같은 접속 조사도 가능

에서는 주격 조사를 주의 깊게 기억

경찰에서 왔습니다처럼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은 주격 조사

또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처럼 행동이 이루어지는 취소의 부사격 조사

또 여기에서 출발한다처럼 출발점의 부사격 조사가 있다

바다 문법- 형태론

단어의 구조

합성어와 파생어 중 합성어를 중심으로 진행함 합성어 이야기하는데 파생어 끼지 마라!

단어:형태소 하나!

복합어 중 합성어: 어근과 어근의 결합

복합어 중 파생어: 어근과 접사의 결합

합성어 중

어근이 각각 본래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결합된 대등 합성어

Ex) 팔다리, 오가다 앞뒤, 밤낮(진짜 밤과 낮)

주의! 가운데 '과/와/고'를 넣어보기

한쪽 어근이 다른 쪽의 어근을 '구미어주는' 의미로 결합된 종속 합성어

국어의 특징상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앞에 오기에

앞의 말이 뒤의 말을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됨

Ex) 둘다리(둘로 만든 다리), 안개비(안개 같은 비), 밭어머다, 덜밥(덜은 밥), 손수건(손을 닦는 수건, 주의!), 늦봄(늦은 봄, 단 이 늦봄은 늦을 접두사로 보기도 함) 군밤(구운 밤) 날짐승(나는 짐승)

이때도 어근의 의미는 둘 다 살아 있다

마지막으로 어근이 결합해 본래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융합합성어'가 있다

이때는 아예 새로운 의미

종속은 수식으로 각 어근의 의미가 남아 있다면

융합의 하나 혹은 모든 어근의 의미가 바뀐다고 생각하기!

Ex) 구멍가게, 피떡(노력), 밤낮(하루 종일), 춘추(나이) 눈앞(바로 앞)

기출에도 나왔듯 대등이든 종속이든 어근의 의미는 둘 다 살아 있다.

또한 구멍가게처럼 융합의 경우에도 의미가 살아 있을 수 있다

핵심은 대등은 와라고/ 종속은 수식 피수식/ 융합은+으로 기억

바다 문법- 형태론

이 합성어 구분과 관련해서 앞서 본 직접 구성성분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접 이 따라서 직접접은 파생어로 이것이 융합인지 대응인지 종속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음

동사적 합성어 VS 비동사적 합성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합성어인지를 고민해야 함

신여성 바느질 같은 파생어를 가지고 이것이 동사적 합성어인지 비동사적 합성어인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

동사적 합성어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는 것으로

비동사를 먼저 기억하고 그 밑고만 넘어가기

핵심은 조사는 생략할 수 있어도 어미는 생략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덮밥이나 접칼처럼 관형형 어미의 생략은 비동사

뛰놀다 곱푸르다 오르내리다처럼 연결어미의 생략은 비동사

척척박사 볼록거울 출렁새 혼잣말 흔들바위 험뎡고개 산들바람

(척척박사가 볼록거울과 출렁새와 함께 혼잣말을 하며 흔들바위가 있는 험뎡고개를 산들바람을 맞으며 넘는다)

정리하면 용언의 어간+(연결어미 없이) 어간- 곱푸르다, 오르내리다

용언의 어간+(전성어미 없이) 체언- 덮밥, 접칼

부사+ 체언- 눈새바람, 척척박사, 볼록거울, 북술비

이제 추가로 동사를 보면

체언+ 체언- 눈발

관형사+ 체언- 새해

관형어 중 어간+ 용언의 활용형+ 체언- 굳은살, 군밤

부사+ 부사- 잘못

부사어 중 부사+ 용언- 잘나다

용언+ 연결어미+ 용언- 뛰어가다

조사의 생략-힘(이)들다

바다 문법- 형태론

파생어

파생어를 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접사에 대한 암기와 굴절접사(어미)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접두사의 경우에는 어근과 파생어의 의미를 차이를 만들어내며(의미한정)

접미사의 경우에는 의미 차이를 만들어냄은 물론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등의 문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접두사에는

새- 선명한 새파랗다, 접미사로는 모양이 가능 겹새

취- 마구, 취졌다

되- 다시와 뒤로, 되겠다

치- 위로, 치솟다

뒤- 마구, 뒤섞다

덧- 겹쳐, 덧대다

군- 덧붙은, 군식구와 쓸데없는, 군침 접미사로는 집단의 군이 있다, 식물군

한- 정확한, 한창인, 한가운데, 한낮& 큰, 한시름

접미사는 피동의 접미사와 사동을 접미사에 파생 접사를 기억하기

이리리기(피동의 접미사, 먹히다)

이리리기우추(사동의 접미사, 넓히다)

이 사동과 피동의 접미사도 품사를 바꿀 수 있다 발다(형용사)- 발히다(동사)

파생접사는

ㅁ 음 기 이 기 어(명사 파생 접미사- 지우거)

cf) 지분을 하나의 형태소로 볼 것인가 파생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어의 경우에도 현재는 명사나 부사 파생 접사로 볼 수가 없기도 하다, 이에 맞춰 현대의 형태소 분석에서 마개는 단일 형태소로 보기도 한다, 반면 이런 부분을 파생의 생산성이 적은 접사로 보고 이를 나누라고 하기도 한다

cf) 동사 형용사 파생 접사

하 슥 뽕 땀(용언 즉 동사 형용사 파생- 공부하다/ 건강하다, 여성스럽다, 새롭다, 남자답다)를 기억하자

-하다는 논란의 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접사로 파악

바다 문법- 형태론

cf)복사 파생 접미사 이 히

복사형 전성 어미 게 도록 듯이 아서 어서

학교 문법에서는 이 복사형 전성어미와 복사파생접사를 통한 것 모두 복사절로 본다

그는 형과 달리 말을 잘한다 여기서 형과 달리가 복사절!

이때 이는 복사 파생 접미사로 형과 달리를 아예 복사로 만듦

그는 밤이 지나도록 울고 있었다에서 도록은 복사'절을 만듦, 밤이 지나도록은 아예 복사가 되는 것은 아님

접사는 붙는 환경에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는데 비해

어미는 붙는 환경에 제약은 적지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다만 어간에 붙어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를 구분하는 것이다

들 다 기와 읊 12 을 공유한다

파생접사를 통해 아예 명사가 된 것은 서술의 의미가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반면 전성어미가 붙어서 아직 품사를 유지하는 것은 서술의 의미가 있고(다를 붙여서 말할 수 있다) 복사어의 수식 0

아침에 하는 달리기- 명사 파생 접미사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명사형 전성 어미

이를 묻는 대표적인 예시가 울음 원래 2 반침의 경우에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 모두 12 을 쓴다

그런데 줄음 울음 벌음 같은 경우에는 명사형이 굳어져서 명사가 된 것으로 파생'명사'이다

EX) 행복한 울음을 흘림

접사의 쓰임과 관련해 암기할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뎃다(부뎃치다)VS 부뎃히다와

붙이다와 부치다

부뎃다- 마주 대다, 마주 댈다 혹은 마주 대거나 마주 댈게 하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다

부뎃치다- 부뎃다의 강조

부뎃히다- 부뎃다의 피동, 즉 주체가 마주 댈는 것을 당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당하는 것

여야가 서로 부딪칠 때, 파도가 바위에 부딪는 소리,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다- 주체의 행위가 개입

바.다 문법- 형태론

차에 부딪히다. 난관에 부딪히다- 부딪다의 피동.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형 붙다의 의미가 남아있다 싸움을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부치다는 붙다의 의미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바람을 부치다 전을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바다 문법- 형태론

<부록1>

마지막으로 접사와 관련한 어문 규정 살피기- 형태와 관련

어근에 이 음 모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붙어서 명사 파생, 형태를 발하기

놀이// 나마 조차 부터는 다른 접사& 다른 품사 따라서 발음대로!

단 이때는 본래 의미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놀음이 아니라 노름!

cf)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사의 경우에는 형태를 발해 적는 경우가 많음

낱시 늪경이 덩개

다만 의미에서 멀어진 경우나 껍밥침에서 앞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형태를 발해 적지 않기도 한다

넙죽 앓드리다 납작

넙따랑다 cf) 넓적하다 넓둥글다 넓죽하다 넓배죽하다

어간에 이 히가 붙어서 부사 파생, 형태를 발하기

많이 빨리 길이 같이 굳이

명사에 이가 붙어서 의미를 더하는 경우 형태 발해 적기

집집이

하다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 형태 발하기

반짝이

깍두기 딱따구리- 깍듯하다 딱딱하다와는 다른 어근

하가 어근에 이히가 붙어서 부사, 부사에 이가 붙어서 의미를 더하는 경우 형태 발하기

꺼끗이 반듯이 꺾꺾히

cf) 히와 이는 어떻게 구별- 하다가 붙으면 히로 하다가 못붙으면 이로 생각

단 ㅅ 반침/ ㄱ 반침 꺼끗하다 반듯하다 주의!// 새로이처럼 ㅅ이 탈락되는 경우(불규칙)// 명사 뒤// 부사 뒤 등 이 있는데 핵심은 제일 앞의 ㅅ 반침을 제외하고 하다가 안 붙는 것으로 생각하기- 유동적이기에 암기할 필요는 없음!

바다 문법- 형태론

<부록2>

형태론을 배우면서 형태론이 무엇?- 넘어가도 된다

국어 문법의 핵심에는 형태, 내용, 사용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내용

이것을 드러내는 형태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와 관련된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단어의 의미

즉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보는 것

형태는 음운, 형태, 통사

음운론은 말소리를 대상으로 음운의 체계와 역사적 변화를 연구한다

음운을 분석하고 그 음운이 음절이 되는 규칙과 체계, 그리고 역사적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형태는 형태소부터 단어까지를 중심으로

단어의 구성요소와 관계를 비롯해 단어의 구조와 품사를 학습한다

형태소가 단어가 되는 규칙을 정리함으로써 단어와 형태소의 구조, 단어의 품사를 학습하는 것이다

통사는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문장과 문장을 구성하는 구, 절 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법요소를 연구한다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과정을 연구하며 문장성분에 대한 분석

문장의 구조와 어순 문법요소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용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분하는 화용론이다

의미론의 하위 범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서 중요하지 않다

화용론은 높임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모습을 연구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와 문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다 문법- 형태론

<ㅈ/ㅊ 문제>

1. 어미는 어간에 붙어 품사를 바꾸고 문장성분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한다
2. 품사는 의미 기능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이다
3.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를 보여주며 이 성질과 상태가 변화하는 것도 형용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4. 빨리 먹기가 어렵다에서 먹기는 명사 어간 먹-에 파생 접사 -기가 붙은 것이다
5. 복사는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
6. 어미는 결합에 제약이 적으며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7. 갈림길과 비빔밥은 명사에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8. 누가 왔니에서 누가는 미지칭으로 볼 수 있다
9. 누가 왔니에서 누가는 부정칭으로 볼 수 있다
10. 신여성은 동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11. 묘사는 비동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12. 자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하지 않는다
- 13 (동사론과 연결) 목적어의 유무만으로 피동과 사동을 구분할 수 없다
14. 날다 나니 납니다 나시오 나오 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예시이다

바다 문법- 형태론

15. (동사론과 연결)철수는 낮에는 공부를 하며 밤에는 일을 한다에서 먹는 대등적 연결어미이다
16. 자립 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17. 이것은 안 되()에 들어갈 말은 요이다
18.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쓰였을 경우 서술어는 2개가 쓰였다고 할 수 있다
19. 띄어가다의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보조적 연결어미를 통해서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었다
20. (어문 규정) 짝두기는 하다가 붙는 어근인 짝두에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것으로 그 형태를 밝힌 것이다
21. 격조사의 경우에는 주로 체언과 결합해 문장 성분임을 드러내고 보조사의 경우에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 어미, 조사 등에 결합해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22. 주격조사와 부사격 조사 등은 그 분포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된다
23. 보조용언은 실질적인 동작, 성질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본용언의 뜻을 더해준다
24. 예와 에서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볼 수 없다
25. 아침에 하는 달리기 경우에는 명사 파생 접사 기가 붙어서 명사로 파생된 것이다
26. 필수적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27. 그녀는 밥을 먹으며 음악을 들었다에서 먹는 동시 동작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이다

바다 문법- 형태론

28.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의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접미사는 의미를 더하는 역할만 한다
29. (사전형- 암기할 필요는 없음) 아이들이 왔다에서 들은 접사와 보조사 중 접사에 해당한다
30. 라면이 불다, 라면이 불고 라면이 불어서 라면이 불니에서 알 수 있듯 불다는 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볼 수 있다
31. (동사론과 연결)종결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직접 경험, 전해들음, 추측 등의 심리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32. 천만에, 글썽 등 감탄사로 다른 문장 성분에 딸려있지 않고 화자의 의지 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33. (어문 규정) 오뎅이는 부사 오뎅에 이가 붙어서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그 형태를 밝혀 적는다
34. 책을 빌리() 도서관에서 예약을 했다. 여기서 목적의 러를 쓸 수 없다
35. 은은은 보조사로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 조사, 어미 등 뒤에 붙어서 대조와 주제 등의 의미를 더해준다
36. 접사는 두 단어의 의미를 하나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37. 아라/ 어라는 특정한 어간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론적 형태소이다
38. 관형격 조사 의는 체언이나 명사절 뒤에 붙어 관형어임을 나타낸다

바다 문법- 형태론

<t/s 문제 답& 해설>

1. 의미는 어간에 붙어 품사를 바꾸고 문장성분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한다

답: f

설명: 의미는 품사는 바꾸지 못하며 품사를 바꾸는 것은 접사이다, 다만 활용을 통해서 문장성분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한다

2019 수능 기출

발다: 형용사/ 시간이나 공간이 더불어 몹시 가깝다.

따라서 '부사'가 필요하다면 발게로는 어렵고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

낯선 바투가 바로 그것 바투는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석 가깝게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어미는 아들에게 바투 다가가 두 손을 뭍켜 주었다

2. 품사는 의미 기능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이다

답: f

설명: 품사는 형태, 기능, 그리고 의미로 구분되며 이때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 부류가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이다

3.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를 보여주며 이 성질과 상태가 변화하는 것도 형용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답: f

설명: 성질과 상태의 변화는 작용의 대표적인 경우로 동사에 들어간다, 따라서 동사의 활용을 따르며 현재형 선어말 어미 ㄴ / 는 등과 결합할 수 있다.

2019 9월 기출

햇살이 발다에서 발다는 형용사이지만

새벽이 발아 온다에서 발다는 상태의 변화로 동사이다 날이 발는다.

추가로 있다는 경우에는 동사는 머무르다로 형용사는 존재하다로 보조용언일 때는 진행/고 있다는 동사 상태와 완료/어 있다는 형용사를 파악

신이 있다고 믿어- 형용사, 여기 5일 동안 있을 예정이다.

바다 문법- 형태론

4. 뱀뿔리 먹기가 어렵다에서 먹기는 명사 어간 먹-에 파생 접사 -기가 붙은 것이다

답: f

설명: 뱀뿔리 먹기의 경우에는 우선 뱀뿔리 먹다가 성립하고 먹기를 부사어 뱀뿔리가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 먹기는 동사이며 이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은 형태이다,

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지와 수식어의 구분은 명사와 동사/형용사 관형사와 동사/형용사의 구분으로 계속 등장한다

많이 많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다 가능/ 부사어 수식 따라서 동사

좋은 많은 보편적이지 않다- 다 불가/ 관형어 수식 따라서 명사

2019 6월 모의고사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의 경우는 중세 국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명사형 전성어미 음/음과 명사 파생접사 ㅁ이 대표적이다

길이 넓음이 기쁘다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였기에 음/음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5.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

답: f

설명: 격조사는 체언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단어가 문장성분임을 나타내는 것. 다만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에는 부사, 조사, 어미 등과 결합이 가능하다, 일찍이다, 어제까지이다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6. 어미는 결합에 제약이 적으며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답: f

설명: 어미는 접사에 비해서 결합할 수 있는 환경에 제약이 적으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뱀뿔리는 부사 파생 접사가 결합해 새로운 하나의 단어가 되고 이것은 사전에 실리지만 어미는 그렇지 않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가/하지만 같은 예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의 경우에는 하-에 어미 -지만이 붙은 형태가 시간이 지나 형태가 굳어진 것이며 아가도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진 것

7. 갈림길과 비빔밥은 명사에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답: f

설명: 어미는 분포에 제약이 적으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비빔과 갈림은 사전에 따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비빔밥과 갈림길에서 비빔과 갈림은 새로운 단어가 아니며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갈림길과 비빔밥은 용언의 활용형에 명사가 붙은 합성 명사이다.

바다 문법- 형태론

8. 누가 왔니에서 누가는 미지칭으로 볼 수 있다

답: t

설명: 3인칭 대명사 중 미지칭은 알고 싶은 것,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왔니 철수가 왔어요 같은 문장에서 누가는 알고 싶은 대상이 있으며 알지 못하는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지칭으로 볼 수 있다

9. 누가 왔니에서 누가는 부정칭으로 볼 수 있다

답: t

설명: 3인칭 대명사 중 부정칭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것으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왔니 아무도 안 왔어요 같은 문장에서는 왔다가 강조되며 누가는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때는 부정칭으로 쓰인 것이다

미지칭과 부정칭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미지칭은 알고 싶다, 특정 대상 지칭 부정칭은 별로 궁금하지 않음, 특정 대상 지칭으로 기억하자

2018 수능

인칭 대명사 중 미지칭과 부정칭의 형태 변화는 중세국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원래 중세에서는 누만 등장 여기에 의문의 보조사 고구가 붙었다

미지칭의 인칭대명사 누에 의문의 보조사 고구가 붙어서 현재의 누구/누고가 만들어진 것 현재는 누구만 남아있다

누-거기 누구-거니 누구세요?

10. 신여성은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답: f

설명: 신여성 홀이불 식용유 되겠다 등은 모두 파생어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없다.

11. 요새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답: f

설명: 요새는 관형사 요와 명사 사이가 결합한 요사이의 준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의 예에는 논밭(체+체) 새해(관+체) 잘못(부+부) 잘하다(부+용/논란거리 - 파생으로도 볼 수 있음) 뛰어놀다(용+연+용) 앞선다(조사생략)를 기억하자!

12. 자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답: f

바다 문법- 형태론

설명: 되다 아니다같은 보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자동사도 존재한다

2017 수능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 역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마음을 여러(마음을 열어) 마음미 여러(마음이 열리어)로 모두 쓰이는 것을 보아 여려는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가능했다, 이것이 현재에 와서는 타동사로만 쓰이고 있다

13 (동사론과 연결) 목적어의 유무만으로 피동과 사동을 구별할 수 없다

답:ㄴ

설명: 피동사와 사동사를 만드는 접사는 이리저리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이로 인해서 둘을 구별할 때 목적어의 유무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친구들에게 돈을 배어갓겼다에서 알 수 있듯 피동문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어가 존재할 수 있다. 피동은 주체가 당하는 것으로 사동은 주체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즉 행위에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자

관련해서 앞선 부딪치다와 부딪히다를 구별 내가 차에 부딪히다가 더 익숙한 이유는 주체가 마주 닿는 행위에 개입하기 보다는 당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14. 날다 나니 납니다 나시오 나오 는 기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예시이다

답:ㄱ

설명: 띄어 쓴 기간 ㄴ 뒤에 ㄴ ㅂ 시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 ㄴ 이 탈락하는 것은 맞으나 이는 ㄴ 탈락의 규칙에 따른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 규칙활용이다. 불규칙 활용의 경우에는 특정 단어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기간이 변화하는 ㄷ ㅅ ㅂ 우 르 불규칙과 어미가 변화하는 여러 불규칙 기간과 어미가 모두 변화하는 ㅎ 불규칙이 있다

2017 6월

불규칙 활용의 경우에는 중세 국어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8중성법으로 중성에는 가나다한색물방울 즉 ㄱ ㄴ ㄷ ㄹ ㅅ ㅂ ㅍ 이 등장한다

따라서 순경음 비음이나 반치음의 경우에는 표기도 등장하지 않고 연음현상의 경우에만 등장한다

뫼다, 도보니(ㅂ은 순경음 비음으로)- 도우니, 도바(ㅂ은 순경음 비음으로)- 도와로 생각하면 편하다

15. (동사론과 연결)철수는 낮에는 공부를 하며 밤에는 일을 한다에서 떠는 대응적 연결어미이다

답:ㄴ

설명: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뒤에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기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정리. 대응적 연결어미에는 고,으 며/며 같은 나열, 지만 같은 대조, 거나 거니 느니 같은 선택이 있다. 위 문장에서 사용된 떠는 대응적 연결어미 나열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나열이기에 대응적 연결어미가 맞다

다만 형태가 같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기도 하는데 법을 먹고 학원으로 갔다처럼 선후 관계,

바다 문법- 형태론

밥을 먹으며 노래를 들었다 같은 동시 동작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16. 자립 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답: F

설명: 명 개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의 역할을 자립 명사가 대신할 수 있다

2016 9월 모의고사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간다, 다섯 사람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자립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17. 이것은 안 되()에 들어갈 말은 요이다

답: F

설명: 요와 오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오는 높임의 보조사로, 오는 종결어미로 기억하자 "이것은 안 되" 까지 나왔다면 어간만 나온 것으로 어미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가 와야 한다

2016 6월

어간 되 뒤에는 어미 오가 붙어야 하고 이 위에 높임의 보조사 요가 붙을 수 있다

따라서 되요 태요는 맞지만 되요는 문법상 맞지 않다

+ 요와 오의 구분은 어문 규정 등을 활용해 자주 등장

우선 이오 vs 이요

이것은 사침이요, 저것은 뱀이요로 기억하자 연결어미는 이요로 종결어미는 받음이 이요여도 이요로 쓰기!

이곳을 참으리요 지키리요 참으리요 지키리요 등은 사전과 어문 규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cf) 한글 맞춤법 1항

어미 뒤에 붙는 조사는 요로 쓴다, 참으리+요, 다만 한탄 등의 의미를 보여주는 어미 으리요/리요가 사전에 등재 따라서 참으리요/ 참으르요 둘 다 가능

<깜짝 알기>

생각하건대의 준말을 생각건대, 앞이 안울림소리로 끝나면 하를 아에 얹어는 것을 중심으로

주의하건대 주의건대 고민하건대 고민건대, 앞이 울림소리로 끝나면 아가 사라지고 축약으로 기억하기

바다 문법- 형태론

18.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쓰였을 경우 서술어는 2개가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답: f

설명: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쓰였을 경우 둘을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봐야 한다. 선생님이 머리를 잘라 주었다에서 잘라 주었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한 하나의 서술어이다. 이때 본용언은 실질적인 동작, 작용,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다는 그러한 실질적인 동작 작용 상태가 아니기에 보조용언으로 보자

19. 뛰어가다의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보조적 연결어미를 통해서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었다

답: f

설명: 뛰어가다에서 뛰는 것과 가는 것은 모두 실질적인 동작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형태소 분석할 때 이는 본용언을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아니라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볼 수 있으며 이 형태가 굳어져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었다. 그리고 이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기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아니라 종속적 연결어미로 볼 수 있다

뛰어가다는 이미 하나의 합성 동사이기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like 살아가다 죽어가다)

뛰어서 가다가 말이 되기에 본+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20. (어문 규정) 깎두기는 하다가 붙는 어근인 깎두에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것으로 그 형태를 밝힌 것이다

답: f

설명: 형태의 어문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형태를 밝혀주는데 깎두기의 경우에는 깎두하다와는 상관이 없기에 깎두기로 적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인 딱따구리의 경우 딱딱하다 딱딱거리다와 상관이 없고 이가 붙은 형태도 아니기에 딱따구리로 적어야 한다

21. 격조사의 경우에는 주로 체언과 결합해 문장 성분임을 드러내고 보조사의 경우에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 어미, 조사 등에 결합해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답: h

설명: 앞서 정리했듯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격조사는 체언과 결합하며 문장 성분을 나타내며 보조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에 결합해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감탄사는 조사가 잘 붙지 않음에도 보조사는 감탄사에도 붙기도 한다(like 아니요, 글썽이요)

22. 주격조사와 부사격 조사 등은 그 분포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된다

답: f

설명: 하나의 조사는 다양한 격조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예시이다. 예서는 주격조사로 사용될 경우 주로 단체를 의미하며 부사격 조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바다 문법- 형태론

23. 보조용언은 실질적인 동작, 성질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본용언의 뜻을 더해준다

답: ㄷ

설명: 본용언이 실질적인 동작, 상태를 의미하며 주다 가다 같은 용언 중 보조 용언으로 쓰임은 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기출문 국립국어원의 답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볼 때 아서/어서를 넣으면 편하다

머리를 잘라 주다- 잘라서 주다가 성립하지 않고 주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

옷을 사 입다- 옷을 사서 입다로 이때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으로 보면 된다

주의할 지점은 살아가다 달아가다 죽어가다 같은 형태들 우선 살아가 가다 달아서 가다 죽어서 가다의 의미가 아니기에 굳이 분석을 하자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볼 수도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힘든 상황에서 살아서 가다의 경우에는 본용언과 본용언으로 볼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살아가다 달아가다 죽어가다는 하나의 합성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보나 본보어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

24. 에와 에서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볼 수 없다

답: ㄷ

설명: 이형태는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나 자음과 모음 혹은 ㄹ 등의 특징 받침과 같은 음운론적 환경이나 유정명사 무정명사 하- 등의 어간같은 형태론적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에와 에서는 의미와 기능이 동일하지 않기에 이형태라고 할 수 없다,

다른 관점에서 준말은 동일한 환경에서 등장하기에 이형태라고 할 수 없다

2014 수능- 사진 스타일 읽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에- 형은 방금 집에 왔다. 이때 에는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 옷에 먼지가 묻었다, 이때 에는 초소의 부사격 조사, 초소는 쉽게 장소나 지점

에- 밥에 국에 반찬에 잘 먹었다.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

에서- 나는 학교에서 운동했다, 행위가 이뤄지는 초소를 보여주는 부사격 조사

에서-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왔다, 출발 지점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25. 아침에 하는 달리기 경우에는 명사 파생 접사 기가 붙어서 명사로 파생된 것이다

답: ㄷ

설명: 아침에 하는 같은 관형어가 달리를 수식하고 있고 아침에 하는 달리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예 명사로 파생된 것이며 이렇게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파생접사로 보자

2014 6월

바다 문법- 형태론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에서 달리기는 부사어의 수식이고 더 빨리 달리다가 말이 되기엔 이것은 전성어미가 붙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는 멋지게 웃음으로써- 멋지게라는 부사어의 수식, 멋지게 웃다가 성립 따라서 전성어미가 붙은 것

그 가수는 현란한 춤을- 관형어의 수식, 다 불가능 따라서 파생접사

오늘따라 학생들의 걸음이- 관형어의 수식, 다 불가 따라서 파생접사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그림- 부사어의 수식, 잘 그린다 가능 따라서 전성어미

26. (동사론과 연결)필수적 부사어는 복속 성분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답: F

설명: 필수적 부사어는 부사어로 주성분을 수식하는 복속성분이 맞다. 그리고 원래 복속 성분은 성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적' 부사어나 의존명사 앞의 관형어 등은 수식어로 복속성분이지만 성립이 어렵다

특히 기출에 자주 등장하난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의 자리수와 연결해서 그 개념을 정리하면 좋는데

두 자리- 같다 다르다 이탈하다

세 자리- 두다 주다 삼다

2013 6월

필수적 부사어와 서술어 자리수 문제는 사전의 형태로도 등장할 수 있다

사다(~에서 ~을) 3자리 서술어

비슷하다(~과) 2자리 서술어, 이것은 그것과 비슷하다 그것과가 바로 필수적 부사어

보다(~을) 2자리 서술어,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삼촌과'- 일반적 부사어

((~에서) ~을) 이렇게 나오면 2자리인 경우도 3자리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

실제 사전에서

만나다((~과)) (~과, ~을) (~을)

이렇게 되면 만나다는 1자리 서술어. 산맥이 만나다

혹은 두자리 서술어로 볼 수 있다. 산맥이 강과 만나다, 내가 문제를 만나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나다, 공원에서라는 따라서 일반적 부사어

황은 그 동일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필수적 부사어, 3자리 서술어

이 지역의 기후는 비농사에 적합하다- 필수적 부사어

나는 오후에 할머니께 댁을 방문했다- 일반적 부사어

바다 문법- 형태론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필수적 부사어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오만 원을 빌렸다.- 필수적 부사어

27. 그녀는 밥을 먹으며 음악을 들었다에서 먹는 동시 동작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이다

답:ㄴ

설명:

2012 수능

며 고/먹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열하는 대등적 연결어미이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며 를 면서로 바꿀 수 있고 이때 주어가 동일하다면 이는 동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일부는 지하철을 타며 일부는 버스를 탄다- 면서로 바꾸기 어색, 일부로 주어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지시하는 주어는 같지 않다 따라서 동시 동작으로 볼 수 없다

28.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의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접미사는 의미를 더하는 역할만 한다

답:f

설명:접두사의 경우에는 뒤, 되, 헛, 신, 한 등에서 알 수 있듯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며 접미사의 경우에는 발히다에서 알 수 있듯 의미를 더하는 것은 물론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의 구조를 바꾸기도 한다

2012 9월

시어머니- 의미만 더하기 멋쟁이 새파랗다도 마찬가지로

웃음은 품사만 바꾸기, 지우개가 마찬가지로의 예시

열리다는 문장의 구조만 바꾸기, 문을 열다 문이 열리다 즉 피동의 접미사, 일리다 놀리다 웃기다 울리다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깜짝 예습>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입이라고 시켰을 수도 있고 직접 옷을 입힐 수도 있는 것. 웃기다 울리다 놀리다 일리다의 경우에는 주로 간접 사용으로만 해석된다, (시킨 것) 다만 직접 간접처럼 웃긴 경우처럼 직접 사용이 될 수도 있다

29. (사전형- 암기할 필요는 없음) 아이들이 왔다에서 들은 접사와 보조사 중 접사에 해당한다

답:ㄴ

설명:

2012 6월- 사전 문제, 읽고 넘어가면 된다

바다 문법- 형태론

보조사 들 셀 수 없는 체언, 부사어, 연결어미 뒤에 붙어서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것

어서들 와라, 많이들 왔다, 나와서들 인사해라, 먹고들 왔다

접사 들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서 복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아이들

30. 라면이 불다, 라면이 불고 라면이 불어서 라면이 불으니에서 알 수 있듯 불다는 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볼 수 있다

답: f

설명: 라면이 불다가 아니라 라면이 불다가 올라온 표현이다. 라면이 불다 라면이 불고 라면이 불으니 불으면 불었다고
ㄷ 불규칙 활용 용언으로 볼 수 있다

2011 6월- 사전형 문제

부르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불렀다- 그를 천재라고 부르다의 피동, 르 불규칙 활용 부르-이- 불리다

반장이 가장 먼저 불려 갔다- 반장을 부르다의 피동, 르 불규칙 활용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리다, 배가 부르다의 사동 즉 짝 찬 느낌이 들다라는 행동사의 사동이자 르 불규칙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재산이 늘어난다는 의미의 재산이 부르다의 사동, 불다는 불규칙 활용의 용언이지만 불리다가 되는 데는 명확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 불+이다 불이다- 불리다

31. (동사론과 연결)종결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직접 경험, 전해들은, 추측 등의 심리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답: t

설명: 꽃이 피었다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안 사실로, 꽃이 피었겠다는 내가 추측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공부를 잘한 데는 전해들을 나타낸다 이처럼 선어말 어미와 어말어미는 전해들은 추측 직접 경험 등을 포함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

2011 6월 모의고사

어제 비가 왔구나- 직접 경험

어제 비가 왔더라- 직접 '경험'한 것을 지금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특징, 그녀는 슬프더라는 그래서 어리둥

눈이 아주 많이 온대- 전해 들음

아직 안 왔네- 직접 경험

도착하겠을걸- 추측

더웠겠어- 추측

바.다 문법- 형태론

32. 천만에, 글썸 등은 감탄사로 다른 문장 성분에 딸려있지 않고 화자의 의지 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답:ㄴ

설명: 천만에와 글썸 글썸이요 등은 대표적인 의지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다른 문장 성분에 딸려있지 않고 쓰이며 청자에 대한 고려 없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감탄사, 청자를 고려하며 의지와 생각을 드러내는 의지감탄사 생각이나 감정 없이 입버릇이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말을 이어가는 등의 입버릇 감탄사가 있다

2010 수능

글썸 잘 모르겠지만

글썸이요 잘 모르겠지만 청자에 따라서 각탄사의 형태도 다르게 쓰일 수 있다

33. (어문 규정) 오뚝이는 부사 오뚝이 이가 붙어서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그 형태를 밝혀 적는다

답:ㄴ

설명: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리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의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형태를 밝혀 적는다 따라서 오뚝이가 아니라 오뚝이로 적어야 한다

34. 책을 빌리() 도서관에서 예약을 했다. 여기서 목적의 러를 쓸 수 없다

답:ㄴ

설명: 목적의 러와 의도 러(고)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의미가 유사하기에 바꿔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환경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다르다, 다른 조건 등이 없는 경우라면 고를 붙여서 말이 되면 러로 고를 붙여서 말이 되지 않으면 러로 보자. 편의상의 tip이기에 따르 보기가 나을 경우 그 분포의 차이에 집중하면 된다

2009 6월- 보기형 문제

책을 빌리러/빌리려고/빌리고자 도서관에 갔다 진부 가능

책을 빌리러/ 빌리려고/빌리고자 도서관에서 예약을 했다에서는 러를 쓸 수 없다. 따라서 뒤에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가 없다면 러를 쓰기 어렵다고 추론 가능, 그냥 이해만 하기!

안 만나러 만나려고 만나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또 여기서도 러만 쓸 수 없기에 부정문에서는 러는 쓰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도 있다

35. 은은은 보조사로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 조사, 어미 등 뒤에 붙어서 대조와 주제 등의 의미를 더해준다

답:ㄴ

설명: 은은은 한국 문법에서 대표적인 보조사로 대조와 주제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정리하면 좋다, 나는 밥을 먹고 엄마는 밥을 먹지 않았으나 돼지는 인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등을 그 예시로 생각할 수 있다

은은/까지마저조차도/ 만뻔뻔에/ 대로 뵈/ 호/ 이나 정도는 리듬감을 가지고 기억하자

바다 문법- 형태론

2009 6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는 좋아했으나 고양이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36. 접사는 두 단어의 의미를 하나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답:ㄴ

설명:

2008 수능

접사는 두 단어의 의미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찾다는 되찾다로 몰래 듣다는 엿듣다로 잘못 더디다는 헛디디다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새옷은 접사를 통해 두 단어의 의미를 하나로 더한 것이 아니라 합성어이다

37. 아라/ 어라는 특정한 어간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론적 형태소이다

답:ㄱ

설명: 아라와 어라는 양성모음(오아 중심)과 음성모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먹어라 보아라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

38. 관형격 조사 의는 체언이나 명사절 뒤에 붙어 관형어임을 나타낸다

답:ㄴ

설명: 격조사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절에 붙어서 문장성분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관형격 조사의는 체언이나 명사절이 관형어임을 나타낸다

2008년 6월

관형격 조사는 중세국어에서 자주 문제로 등장한다.

높임의 유정명사(동물 사람으로 생각)나 무정명사(식물 무생물로 생각)의 경우에는 ㅅ

높이지 않는 유정명사는 의혹은 아래아를 쓴 의를 생각하기

소의 고기- 쇠고기 쇠고기 소고기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

부터 ㅅ 부처님의